

# 멕시코 경제협력을 위한 업계 소통 강화

- 통상교섭본부장,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5월 8일(금)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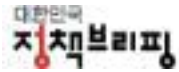
금번 회의는 FTA 미체결국에게 적용되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와 USMCA 재협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앞두고 업계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,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·투자국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민·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.

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“한-멕시코 FTA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,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”라고 강조하며, “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”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하였다.

업계 참석자들은 금년 1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로 인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, 미국-멕시코 간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. 아울러, 관세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멕시코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, 장기적으로 한-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수출상품이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

산업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멕시코 경제부 및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 여한구 본부장은 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	책임자	팀 장	이동섭 (044-203-5630)
	중남미대양주통상팀	담당자	사무관	김하은 (044-203-5634)
	통상협정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정미 (044-203-5740)
	통상협정정책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이창우 (044-203-5742)
	통상협정정책관	책임자	팀 장	김선애 (02-2100-1370)
	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	담당자	주무관	우현도 (02-2100-1365)



□ **회의 개요**

- 일시/장소 : 5.8(금) 10:00~11:00 / 대한상의 소회의실1(지하2층)
- 참석 대상
  - (산업부) 본부장님(주재), 중남미팀장, FTA정책과장 등
  - (기업) 자동차현대차, 르노코리아, 가전삼성전자, LG전자, 철강포스코, 부품현대모비스, 석유HD현대오일뱅크
  - (협회) 철강협회, 가전협회, 차부품협회, 석유협회
  - (기관) 무역협회, 대한상의, KOTRA
- 의제 : 기업애로 청취 및 한-멕 FTA 재개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

□ **진행 순서(안)**

※ 공개 범위 : 모두발언까지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0:00-10:05 (5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개회 및 모두발언</b></li> <li>※ 시작 전 참석자 사진촬영</li> </ul>	<b>통상교섭본부장</b>
10:05-11:00 (55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자유토의(업계 수요 및 애로사항)</b></li> </ul>	참석자 전원